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kangolee@naver.com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1. 들어가는 말

몇 년 후 우리는 2012년을 도시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할 것이다. 짧게는 4-5년, 길게는 20여년간 축적된 도시농업의 힘이 폭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전통적인 농업사회였던 우리 민족의 잠재된 경작본능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농업인, 원예가, 조경가, 도시공동체운동가 등 등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의미에서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도시민의 입장에서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그 동안 필자가 시도해봤던 다양한 구상과 실천을 정리해 보았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석사졸업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담당위원, 생명의숲서울그린트러스트 등 시민운동에 참여
- 도시숲/도시공원/시민참여/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활동 진행

2. 주말농장에서 커뮤니티가든까지

1) 서울의 주말농장

서울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중에서 매년 친환경주말농장을 지정하고 친환경 주말농장에 필요한 원두막, 퇴비, 병충해퇴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흥망성쇠가 거듭되지만 현재 약 80여개의 주말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말농장은 3~4평을 전후로 분양되며 작게는 50구획(plots), 많게는 200구획 정도 된다. 3평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즐거운 경제애기가 숨어있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평당 2~3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토지주에게 3천원~1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한다. 분양하기 전에 흙을 갈아엎고 퇴비를 넣고, 분양 후 관리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0평 정도의 주말농장을 운영하면 최소한 1000만원의 수입은 보장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말농장 농장주(운영자)가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이라 퇴직 후 훌륭한 일자리가 아닐 수 없다. 매년 분양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바뀌기는 하지만 4~5년 이상 오래된 참여자들도 많다. 이들과는 자연스럽게 농장주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온 것이다. 주말농장은 의외로 도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양평동의 주말농장은 과거 1980년까지 소를 방목하거나 사료용 곡물을 재배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설명: 왼쪽위에서부터, 강남서초지역의 일반적인 텃밭, 강동구의 아파트단지 근처의 텃밭, 종량구 신림과 주택가 사이의 텃밭, 종량구 먹골배밭의 텃밭, 텃밭-정원, 도봉구의 저층주거지내의 아담한 텃밭

[그림 1] 주말농장이 만드는 도시경관들

2) 상자텃밭

상자텃밭에서 주머니텃밭으로 이름이 바뀐 상자텃밭운동은, 2007년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시도가 있었고,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옥상에서 골목에서 화분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간편한 주머니텃밭이 개발되어 상자텃밭운동이 더욱 다양해졌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있다. 상자텃밭은 농사지을 땅이 없는 도시민에게는 좋은 경작기회를 제공한다. 또 아이들에게 한 개의 상자텃밭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기존의 무질서해보이는 화분과 스티로폼 텃밭을 가지런하게 상자로 정리하여 골목경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플라스틱상자가 보급되고, 애초에 지향하였던 재활용상자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보급하는 것은 선심성이 있어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게 아닐 경우 쓰레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상자텃밭은 자발적인 개인, 가정의 텃밭가꾸기 운동으로 되어야 한다.



[그림 2] 가정에서의 텃밭가꾸기

3) 도시텃밭공동체 꿈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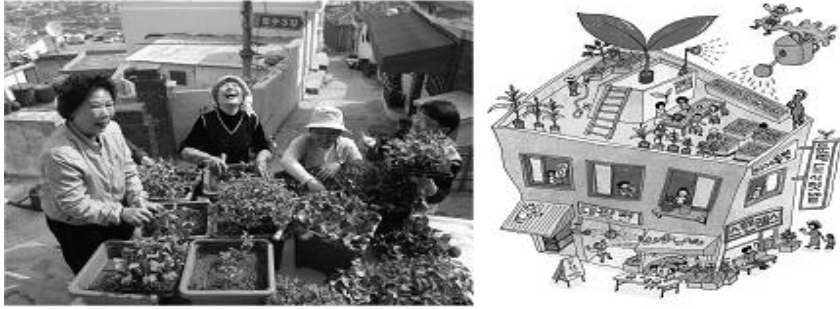
상자텃밭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몇 가지 사건들은 상자텃밭으로 공동체운동이 만들어진 사례들이다. 1인가족 이웃랄랄라는 마포구의 한 30대 초반의 여성이 시작한 운동이다. 햇반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혼자 사는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생활의 변화를 모색하고, 동병상련의 젊은이들이 도시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이다. 땅이 없으니 옥상을 빌려서, 흙이 없으니 성미산에 밤에 찾아가 흙을 퍼오고,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를 모으고, 없는 기술로 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래도 재미있기만 하다. 젊음은 상자를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과 그림을 넣기도 하고, 어설프게 키운 채소를 수확해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작은 상자텃밭이 젊음에 잠재된 경작본능과 공동체 본능을 깨운 것인가?

2010년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레알텃밭 운동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학교의 빈터를 찾아서, 학교당국의 허락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배운적 없는 농사를 해보기 위해 텃밭보급소의 지원을 받고, 수확한 채소로 야채시장도 여는 모든 과정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최근 개최한 워크숍을 찾아온 레알텃밭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대학으로 이미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당국이 경관만 유지하는 잔디밭을 내놓지 않아 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젊음의 의지라면 능히 넘어갈 산일 것이다.

2011년은 문래동도시텃밭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영등포 문래동에 아파트숲속에 텃밭그러니 남아있는 철공소에 예술가들이 동지를 트기 시작하였다. 뉴욕의 소호를 연상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것이다. 그러나 예술가와 철공소 주인들과의 관계 만들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아파트 주민들은 번드르한 도시에 음침한 철공소가 반갑지 않아, 주민들이 철공소를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곳에 예술가들과 여성환경연대의 활동가들이 텃밭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철공소 옥상은 쓰레기 더미와 다름없었다. 건물주를 설득해 쓰레기를 다 치우고 막 시작하려는데, 나가라고 한다. 결국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건물 옥상 청소해준 결과 밖에 되지 않았다. 어렵게 다른 옥상을 구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한 해 농사를 짓고, 겨울철 농사와 커뮤니티공간을 위해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파티와 마을축제도 열고... 얼었던 철공소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발길이 늘어나고... 새로운 도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공소에서 재배한 채소는 홍대앞의 한 카페에 공급되고, 카페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철공소로 와서 퇴비로 태어나고 있다. 철공소와 홍대를 자전거로 연결하는 청의 이름은 지렁이 청년이다.

2011년 또 하나의 발견은 장수마을이다. 박원순시장의 등장 이후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마을이다. 한 사람의 마을운동가가 재개발지역에서 가난한 주민들과 마을만들기 운동을 하는 동네이다. 이미 곳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길을 받아 작은 틈이 있는 곳은 여지없이 채소들이 자라고 있고, 골목에 나와있는 화분에는 갖가지 꽃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텃밭은 노인들의 소일거리이고, 마을사람들의 소통의 도구이다. 이집 배추는 왜 이리 힘이 없나..쫄쫄... 이웃집 할머니의 간섭이 정겹다.



[그림 3] 도시텃밭 공동체

4) 유치원의 공동텃밭

필자가 도시농업, 텃밭을 처음 접한 것은 우리집 두 아이가 자라났던 생태미술유치원이었다. 지금은 여행학교로 바뀐 도봉구의 한 생태미술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일주일에 3일은 도봉산 자락에 있는 텃밭에서 뛰어논다. 주말농장 운영자가 잘 관리되지 않는 텃밭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생산을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텃밭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유치원의 놀이터이자 텃밭의 힘든 노동은 부모들이 맡는다. 매년 텃밭에서 부모들을 모시고 재롱잔치를 연다. 도봉산 자락의 텃밭의 상당수는 과거 논이었다. 항상 끊이지 않고 흐르는 도봉산의 계곡물을 받아 다락논을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주말농장 텃밭장사가 훨씬 잘되기 때문에 전부 텃밭으로 변한 상황이었다. 그 곳에 몇 몇 아빠들의 힘을 빌려 작은 논을 만들고, 물이 끊겨 집에서 각자 피티병에 물을 모아 논에 물을 대는 행사도 가지고, 함께 모내기를 하였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한마디씩 거든다. 그 쪼그만 논에서 뭘 수확해서, 쌀이라도 한 말 해먹을까? 떡이라도 찌 먹겠소?... 아이들의 눈에는 개구리도 살고, 메뚜기도 산다. 그리고 이웃들의 관심과 애정이 녹아들어간다.



[그림 4] 유치원의 공동텃밭

5)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시도

2007년 서울의 7개 단체가 모여 그린벨트 조사를 하면서 방이동습지 주변에 거대한 농경지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서울에는 강서에 논과 강남/서초/강동지역의 화훼, 중랑의 먹골배가 3대 농업이라 일컬어진다. 당시 조사에서 아직 서울에 지목상으로 1,500ha의 농경지가 남아있고, 불법경작이라 부르는 산림과 강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농사까지 GIS로 조사하면 2,000ha에 달한다. 그러나 1990년대 그린벨트의 부분적인 해제와 함께 서울에서 1990~2000년 사이에 농경지가 3,000ha에서 1,500ha로 1/2이 사라졌다. 대부분 공공개발로 사라졌다. 지금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명분으로 남아있는 도심속 생명의땅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논과 밭은 도시계획상 아무런 색깔을 가지지 않는 개발의 유보지이다. 도시농경지에 도시계획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논과 밭은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노들섬과 갈현근린공원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강동지역의 또 다른 습지주변에 농경지를 신탁운동을 통해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5] 도시농업공원

6) 커뮤니티가든 꿈꾸기, 솔이텃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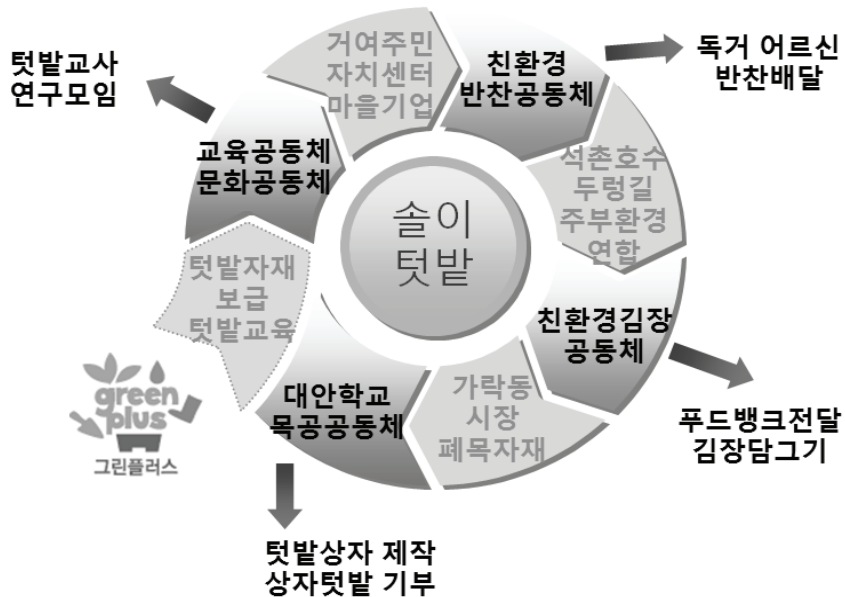
방이동 습지 주변 농경지의 도시농업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송과구를 만나면서 2,000평 정도의 텃밭을 빌려 친환경솔이텃밭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해에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5분만에 200가구 모집이 마감되었다. 다음해에는 좀 더 도전적으로 비닐하우스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이듬해에는 서

울형사회적기업 그린플러스를 창업하고 위탁하면서 서울형 커뮤니티가든을 모색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송파구 내에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도 지원하게 되었다.

커뮤니티가든 또는 텃밭공동체에 대한 시도는 이미 귀농운동본부에서 경기도 인근 여러 곳에서 텃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으로 콩을 재배하여 된장을 담그는 된장공동체도 만들어가고, 농장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귀농의 기회로 삼고 있다.

7)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전

주민참여 도시녹화 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도시녹화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하였으나,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아직은 가드닝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부족하고, 사업전망도 잘 발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농업의 붐이 일면서 이번에는 도시농업을 통한 사회적기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위 그림과 같이 마을과 가정으로 도시농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지역별 도시농업지원센터가 필수적이다. 재료와 기술과 정보의 유통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보통명사 대신에 '그린플러스'라는 사회적 기업을 출발하였다. 그린플러스는 우선 송파솔이텃밭을 거점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맥락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림 6] 그린플러스의 사회적 관계와 맥락

8) 서울파머스마켓에 대한 시도

2010년 서울 숲에서는 서울파머스마켓이 개최되었다. 도시농부들이 생산한 수확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행사를 갖고,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듬해 계속되는 못하였지만, 파머스마켓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확인한 것 같다. 도시농업이 사회경제적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 파머스마켓은 필수적이다. 이미 세계의 여러 도시들에서 파머스마켓이 진행되고, 명소화되고 있다. 파머스마켓은 농부와 도시민의 직거래를 의미하기도 하고, 로컬푸드를 얘기하기도 하고, 도시농업과 도시농부에 대한 에피소드이다. 대량생산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2012년 올해는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서울농부장터가 매달 열린다고 한다.

3. 시애틀의 P-patch 커뮤니티 가든

시애틀에는 약 37년의 긴 역사를 가진 커뮤니티가든 P-patch(Pigardo씨의 농장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작은 공간 patch를 묶어서 부르고있음)은 우리나라 도시농업이 공동체 운동으로 어떻게 변화발전할 것인지 암시하는 사례이다. 커뮤니티가든이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함께 오픈스페이스를 돌보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이다. 전통적으로 시애틀의 커뮤니티가든은 공동체구성원들이 소정의 비용을 내고, 분양된 개인의 텃밭을 관리하며 공동구역은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관리한다.

P-patch란 시애틀만의 독특한 커뮤니티가든의 명칭이며, Neighborhoods Department에서 관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다양한 작물과 꽃과 허브와 유실수를 심고 가꾸고 있다. P-patch는 시범텃밭, 과수원, 야생동물서식지 및 토착수종 식재지역, 교육적인 게시판, 공공이벤트와 교육을 위한 공간, 푸드뱅크의 'giving garden'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애틀 전역에 73개의 P-patch에 2056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텃밭참여자는 주변경관을 관리하는데 연간 8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텃밭을 방치하면 퇴출된다고 한다. 텃밭을 분양할 때도 대기자리스트, 공동체참여정도, 지역사회와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지역공동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다음은 시애틀 시정부에서 P-patch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효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 1) 공익적 활용
 - 가드너들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을 활성화한다.
 - 가드너들은 공동체참여에 적극적이다.
 - 일반시민들을 가든에 초대하고 안내활동을 한다.
- 2) 푸드뱅크 후원 : 2009년에 27,000파운드 이상의 음식물을 기부하였다.
 - 9%의 가드너가 주1회 푸드뱅크 후원에 참여하고, 월1회 참여하는 가드너는 40%에 달한다.
 - 38개의 P-patch 커뮤니티 가든이 'giving garden'에 참여하고 있다.
- 3) 공동체 봉사
 - 2009년 1900명의 P-patch 가드너가 18,853시간을 봉사하였다. 이는 9명의 상근일꾼의 역할과 같다.
- 4) 오래된 가드너가 리더십의 핵심역할을 한다.
 - 7년 이상 오래된 가드너들이 그룹의 리더, 그리고 농기구 관리 등 전체를 위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 5) 공익을 위한 참여와 투자
 - 성공적인 커뮤니티가든은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수년간의 유기농법을 통해서 토양이 개선되고 경관이 조성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 장기적인 참여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 6) 교육효과
 - 오래된 가드너들이 유기농법에 의한 모델텃밭을 조성하여 타인들에게 모범과 교육적 효과를 주게된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된 P-patch 커뮤니티가든은 그 자체로 모델가든이고 교육장이 될 수 있다.
 - P-patch 커뮤니티 가드너들은 녹색혁명가들이다. 그들은 빗물저금통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텃밭을 만들고, 그린빌딩 재료를 생산하며, 무기/유기물의 재활용한다.



[그림 7] 우리시대 열린공간의 패러다임 전환

글을 마치며

시애틀의 P-patch 커뮤니티가든의 또 다른 사회적 특징은 참여자의 20%가 유색인종이며 55%가 저소득층에 속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국내의 도시농업 사례와 함께 시애틀의 커뮤니티가든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농업이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접근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간 우리 도시의 열린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시민과 지역사회는 없고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토목개발시대에서 돌봄의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시농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을 기대해본다.